

# 하나님나라의 관점에서 본 한미FTA

## -한미 FTA가 가져올 사회적 양극화 현상을 중심으로-

한미FTA협상은 한국사회에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많은 논쟁점이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한미FTA가 가져올 양극화 현상에 초점을 맞춰 하나님나라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성찰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곤혹스러움을 느끼고 있다. 우선 사실관계에 관련해서 과연 한미FTA가 체결되면 과연 사회적 불평등 즉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혼돈스럽다. 찬반론자들의 주장이 다 그럴듯해서 어떤 입장을 받아들여야 할지 판단이 잘 서질 않는다 둘째, 신학적 윤리와 관련해서 그리스도인은 다양한 층위의 평등과 불평등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취해야할지 자신이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침묵과 관망의 자세를 취한다. 이런 입장이 우리를 편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 중립적 입장은 실질적인 면에서 한미FTA체결을 적극추진하고 있는 정치·경제계의 기득권세력에 동조하는 효과를 낳기 때문이다. 힘들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한미FTA가 자신들에게 던지는 질문들을 정면으로 대면하여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입장을 정리하고 그에 따라 응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실관계를 파악해야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첫째 항목에서 채택된 분석방법에 의거하여 한미FTA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에 대하여 분석해본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한미FTA가 심화시킬 사회적 불평등 즉 양극화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를 고찰해보려고 한다.

## 1. 사회적 약자의 관점과 사실관계파악의 연관성

특정한 경제현실 속에서 윤리적 실천방향을 설정하려면 우선 그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미FTA에 대하여 바르게 윤리적 입장을 정하고 실천에 참여하려면 우선 한미FTA가 도대체 한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하여 최대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는 어떻게 이다.

### 1) 사회분석적 매개의 필요

정치·경제적 현상을 최대한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선 사회분석적 매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경제현실의 총체적 진상은 단순히 주관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에 의해서 파악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관찰자 자신이 이미 경제현실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현실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특정인의 직접적인 지식만으로 그 사실의 총체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론적 분석도구를 적절히 사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존 밀뱅크나 스탠리 하우어와스 같은 현대 기독교공동체주의자들처럼 모든 사회과학적 분석도구를 거부하고 신학을 특히 그 중에서도 교회론을 사회와 경제 현실을 비판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메타담론(metadiscourse)으로 설정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sup>1)</sup> 물론

1) John Milbank, *Theology and Social Theory: Beyond Secular Reason* (Oxford, Blackwell, 1990), p. 380: 밀뱅크는 '교회 자체가 하나의 사회체도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교회는 이미 필연적으로 다른 인간공동체를 해독해내는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Stanley Hauerwas, "What could It Mean For The Church To Be Christ's Body" in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vol. 48, No. 1 (1995), p. 6: 하우어와스는 '교회는 사회윤리를 따로 갖고 있지 않다. 이는 교회 자체가 사회윤리이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한다.

신학을 메타담론으로 간주하는데도 긍정적인 점이 없는 바는 아니다. 해방신학에서처럼 특정 사회분석도구를 지나치게 절대화하여 신학적 사회비전과 특정사회이념을 일치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제어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반면 특정한 사회분석도구에 담겨 있는 사회적 비전과 가치가 신학적 메타담론에 담겨있는 절대적 정의의 경지에 미치지 못한다고 가볍게 무시하고 이상주의적 접근에만 몰두하게 만드는 치명적 약점이 있다.

세속사회의 경제현실을 비록 완벽하지는 못할지라도 최대한 하나님나라의 비전에 가깝게 접근하도록 변혁시켜나가는 것에도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다. 올리버 오도노반이 잘 지적한 것처럼 온전하지 못한 세상에서 하나님나라의 정의를 추구해야 할 그리스도인에게 타협과 절충은 피하려야 피할 수 없는 ‘존재의 법칙’이다. 즉 세속사회에 참여하여 변화시켜나가기 원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윤리적 결단은 충실성(faithfulness)과 절충(compromise)사이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sup>2)</sup> 부른너가 잘 지적한대로, 예수님 자신도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이 하나님의 창조질서에는 못 미치는 것이지만 마음이 완악한 인간을 다스려야 하는 시민법의 영역에서는 정당했다는 점을 인정하셨다.<sup>3)</sup> 그러므로 공적인 영역에서는 실현가능성을 감안하여 상대적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인 것이다.<sup>4)</sup>

또한 그리스도인은 세속사회로부터 스스로를 완전히 고립시켜서는 안되기 때문에 세속사회의 현재모습을 사실상 그대로 지지하던지 아니면 최선을 다하여 개혁에 힘써야 할 것이다. 당연히 후자 즉 상대적 정의 추구가 명백히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상대적 정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마 5: 13-16; 6: 33). 우리는 이 사명을 상당히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인 스티븐 모트는 성경에서 빛은 어둠과 대항에서 싸우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힘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그는 이사야 9:2-7에 주목하면서 빛의 역할은 바로 ‘피 흘리는 전쟁터에서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는 것이요 정의를 세우는 것임을 역설하였다.’<sup>5)</sup> 이렇게 볼 때 ‘세상의 빛’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대안적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뿐 아니라 세상의 정치·경제체제를 하나님의 정의에 비추어 개혁해 나가는 적극적인 사명도 포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사회경제현실의 상대적 진보와 발전이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사명 중에 하나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를 위해 그리스도인은 사회과학적 분석도구를 적극적으로 그리고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

## 2) 선택기준: 사회적 약자의 관점과 과학적 역량

사회분석도구를 사용하려고 할 때 그리스도인은 너무나 다양한 이론들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한 이론들을 평가하여 취사선택하거나 적절히 종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해방신학자 클로도비스 보프는 두 가지 기준을 적절히 제시한다. 하나는 각 사회분석도구가 내재하고 있는 윤리적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그 도구가 보여주는 과학적 역량이다.

기독교인이 당연히 선호해야 할 윤리적 관점은 사회적 약자의 관점이다. 이는 결코 과학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 아니다. 어차피 모든 사회과학적 분석도구의 맨 밑바닥에는 일정 정도의 윤리적 선택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사회과학적 이론들이 윤리적 측면에서 중

2) Oliver O'Donovan, *Resurrection and Moral Order: An Outline for Evangelical Ethics* (Leicester, IVP, 1986), p. 96. Cf. 1 Cor. 5:9-10.

3) Emil Brunner, *Justice and Social Order*(London: Lutterworth Press, 1945), p. 92.

4) O'Donovan, *Resurrection*, p. 130.

5) Stephen C. Mott, *Biblical Ethics and Social Chan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2), p. 140.

립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판이다. 실제로 경제현실을 중립적으로 파악하는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경제적 관계는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간의 사회적 관계에 의해 결정적으로 규정된다. 자본주의로 말하자면 자본과 노동의 관계가 가장 결정적인 관계이다. 노동조합의 발전으로 노동의 힘이 자본주의 초기보다 강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자본주의 생산양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노동에 대한 자본의 우위는 기본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역학관계 위에 형성되는 경제현실을 힘과 아무런 관련 없이 중립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심각한 착각이요 오류가 아닐 수 없다.

예컨대 탈윤리적 입장을 견지한다는 의미에서 소위 순수경제학이라 불리는 주류 자본주의 경제학의 저변을 살펴보면 허경희가 잘 지적한 것처럼 문명구조 차원에선 효용주의가, 경제조정차원에서는 자유주의가 그리고 경제규범차원에선 이윤 복음주의적 체계를 절대화하는 개인주의 윤리가 매우 견고하게 장착되어 있다.<sup>6)</sup> 이 모든 것은 사실상 경제적 강자에게 유리한 윤리적 이념체계이다. 그럼에도 순수경제학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그 경제학이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경제현실이 강력한 정치적 힘과 시민사회의 체계모니에 의해 지지받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 정치적 힘과 시민사회의 체계모니가 너무 강력한 나머지, 아무도 도전할 수 없는 일종의 주어진 자연법칙처럼 간주되고 있을 뿐이다. 역설적이게도 현재의 자본주의체제에서 큰 성공을 거둔 조지 소로스조차 순수경제학에 담겨 있는 기계적 세계관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경제학의 균형이론의 근저에는 그 이론이 물리학과 유사하다는 가정이 있는데 이는 그릇된 유비이다’.<sup>7)</sup>

그렇다고 사회적 약자의 관점으로 경제현실을 분석하는 자체가 과학적 정확도를 충분히 보장한다는 말은 아니다. 여전히 과학적 역량 즉 최대한 종합적이고 세밀한 이론의 틀을 만들고 그에 기초해 실증적 분석을 하고 합리적으로 논리를 전개해 가는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그에 앞서 사회적 약자의 관점을 취하는 것은 최소한의 필요조건임에는 틀림없다.

같은 현실이라도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리 이해되기 때문이다. 한미 FTA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할 때 이미 경쟁력을 갖춘 자의 입장에서 보면 무역장벽이 사라지고 시장이 넓어지기 때문에 얻게 될 이익에 집중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약자의 입장에서 보면 시장개방으로 말미암아 겪어야 될 고통과 다양한 피해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강자의 입장에서 분석하면 결국 약자들이 단기적으로 고통 당하거나 희생함으로써 전체를 살릴 수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그로 말미암아 더 큰 이익에 약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을 것이다. 그러나 약자의 입장에서 분석하면 고통의 대부분을 약자가 분담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정의롭지 못할 뿐 아니라 약자들이 장기적으로 이익을 볼 것이라는 것도 불확실하거나 그 반대일 확률이 더 높다는 전망을 내놓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일단 약자의 입장에서 분석한 결과에 예민하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하나님 자신이 그런 시각에서 현실을 바라보시기 때문이다. 애굽경제의 노예제도는 바로로 대변되는 기득권자들이 분석할 때 애굽경제의 총체적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탁월한 제도로 평가되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통 당하는 노예 백성인 히브리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의 입장에서 바라보셨다. 노예제도가 애굽경제의 총체적 효율성을 증가시켰다고 해도 그것이 노예들의 착취와 억압에 바탕을 둔 것이었기에 정의롭지 못한 것이고 극복의 대상으로 간주하셨다.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을 바로의 정치경제 체제에서 해방시키시고 가나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정치경제체제를 실현케 하셨다. 그 제도는 사

6) 허경희, 『새로운 밀레니엄은 없다』 (서울, 오름, 1999), 135 쪽.

7) George Soros and Jeft Madrick, “The International Crisis: An Interview,” *The New York Review of Books* (14 January 1999). Bob Goudzwaard, *Globalization and The Kingdom of God* (Michigan, Baker Books, 2001), p. 24에서 재인용함.

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고 확보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회년법은 사실 50년 동안 열심히 노동하고 절약해서 땅의 소유지분을 확장한 사람의 입장에서 얼마나 부당한 법인가? 하지만 하나님은 땅을 잃은 가난한 사람과 그 자녀들의 입장에서 제도를 확립하셨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경제정의의 핵심사상이다.

물론 우리가 처해있는 역사적 사회현실을 감안할 때, 소위 순수경제학적 분석결과를 무조건 배척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비판적으로 성찰하여 최소한의 수용할 부분만 받아들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사회적 약자의 관점을 충분히 반영하려고 노력한 사회 분석에 대하여 더 깊은 관심을 보여야 한다.

### 3) 이론과 사실의 상호관계

이 점에서 얼마 전 연합뉴스와 가진 특별회견에서 제시한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 FTA를 반대하는 진보진영에 대한 비판적 논평은 매우 유감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다. 그 핵심은 ‘현실을 봐야 하며 객관적 사실을 인정해야 하며 이론과 사실이 다르게 갈 때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좀더 구체적으로 한미 FTA를 반대하는 이론적 근거인 종속이론은 한국사회에 맞지 않는 것임으로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종속이론의 실패이유에 대한 노대통령의 잘못된 이해, 그리고 종속이론의 실패가 한미 FTA의 추진을 정당화한다는 그의 주장의 오류에 대하여는 이근 교수가 잘 지적했기 때문에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sup>8)</sup>

다만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실수를 범한 것은 대부분의 현대인들처럼 너무 쉽게 이론과 사실의 단순한 이분법에 안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물론 이론과 사실의 세계는 서로 완전히 중복되는 영역은 아니다. 하지만 둘을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한 상호적 관계에 놓여 있다. 이론 밖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어떤 이론의 옳고 그름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해줄 수 있는 사실의 세계는 엄밀하게 말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인간은 제한된 인식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실의 총체(totality)를 동시에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할 능력이 없다. 우리는 특정 사실을 선택하여 그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연구할 수밖에 없고 그 선택과 분석의 배경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론이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모든 이론에는 일정한 윤리적 관점이 내재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수용하지 못하면 자신이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채택한 이론을 통해 파악한 사실관계를 객관적 사실로 절대화하게 된다. 그리고 그 사실의 이름으로 그 사실을 공격하는 어떤 이론도 너무 쉽게 거부하게 된다. 노무현 대통령도 바로 그 함정에 빠진 것이다. 그가 ‘현실과 사실’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 그가 파악하고 있는 ‘현실과 사실’은 신자유주의 경제이론에 의해 파악된 사실일 뿐이다. 물론 그렇게 파악된 사실이 다 틀렸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너무 절대화하게 될 때, 그 사실을 공격하는 듯한 이론들을 너무 쉽게 사실의 이름으로 배격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론과 사실의 밀접한 상호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수용할 할 때 비로소 어떤 이론이 사실을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본자세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약자의 관점에서 이론의 틀을 세우고 그 기초 위에 최대한 과학적 역량을 발휘하여 경제현실을 분석한 결과를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강자의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를 놓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한다. 그럼 이제 약자의 관점에서 본 한미 FTA의 문제점에 주목해보자.

## 2. 사회적 약자의 관점에서 본 한미 FTA

한미FTA의 결과를 분석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경제이론들은 크게 두 흐름으로 나눌 수

8) 이근, 「한미 FTA, 대통령이 모르고 있는 것들: 미래연의 지구촌 분석과 전망」 <48>,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 2006.8.14. <http://www.pressian.com>

있다. 하나는 비교우위론으로 강자의 논리고 다른 하나는 소위 사다리 건너차기론으로 약자의 논리를 들 수 있다.

## 1) 비교우위론 vs 사다리 건너차기

### ① 비교우위론: 강자의 관점

자유무역이 모두에게 유익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최초의 국제자유무역이론은 영국의 정치경제학자 D. 리카르도에 의해 ‘비교우위론’이라는 이름으로 제시되었다. 각국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품목만 집중적으로 생산하여 서로 무역을 하면 전체적으로 생산성이 높아짐으로 모두가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된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을 근거로 하여 영국과 미국 등을 비롯한 경제강국들은 약소국들에게 시장을 열 것을 요구해왔다. GATT체제하에선 그래도 약소국들의 입장이 어느 정도는 반영되었다. 그러나 WTO체제로 넘어가면서 약소국의 입장에 대한 배려는 더욱 축소되고 자유무역에 대한 압박은 더 강화되어 왔다. 그 압박은 4차에 걸친 한미 FTA협상과정에서 이미 잘 드러나고 있는 대로 더욱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철저히 강자의 논리이다. 우선 이 이론은 국제적분업과 자유무역으로 인한 이득을 누가 어느 만큼 가져갈 것인가에 대하여는 말해주지 않는다. 그것은 결국 각국이 집중적으로 생산해서 수출하는 상품의 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그 가격은 경제학적인 용어론 수요와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결정된다고 설명된다. 그러나 실상은 국가의 경제력과 경쟁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제3세계의 가난한 나라들이 생산하는 농산품의 가격은 하락하는 반면 선진국의 공산품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해온 것으로 잘 설명이 된다.<sup>9)</sup> 유산국의 경우 OPEC이라는 강력한 카르텔을 형성하여 원유 가격을 일정 정도 올리는데 성공했지만 다른 품목의 경우 상품 의존도가 원유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불가능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발전의 수준의 격차가 큰 나라끼리 FTA를 맺으면 경제력의 순위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장기적으로는 선진국은 이익을 보는 반면 후진국은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경쟁력이 없는 후진국의 기존 산업은 도태되는 반면 미래성장동력으로서의 가능성을 지닌 새로운 산업은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sup>10)</sup>

### ② 사다리 건너차기: 약자의 관점

비교우위에 입각한 자유무역론이 강자의 논리라는 것을 잘 밝혀낸 또 하나의 이론은 소위 ‘사다리 건너차기’론이다. 한국에선 장하준 교수를 통해 잘 소개되었는데 ‘사다리 건너차기’라는 표현은 원래 유치산업 보호론의 시조로 알려진 19세기 독일 경제학자 리스트에 의해 제일 먼저 사용되었다. 그는 자기 시대 영국 정치인들과 경제학자들이 자유무역의 이점에 대해 설교한 내용을 코스모폴리티컬 독트린이라고 명명하면서 이렇게 꼬집었다:

사다리를 타고 정상에 오른 사람이 그 사다리를 건너차 버리는 것은 다른 이들이 그 뒤를 이어 정상에 오를 수 있는 수단을 빼앗아 버리는 행위로, 매우 잘 알려진 교활한 방법이다. 바로 이 방법에 스미스(Adam Smith)의 코스모폴리티컬 독트린과 동시대 위대한 정치가 피트(William Pitt)의 코스모폴리티컬 경향, 그리고 이후 피트의 정치적 후계자들의 비밀이 담겨 있다.

보호관세와 항해규제를 통해 다른 국가들이 감히 경쟁에 나설 수 없을 정도로 산업과 운송업을 발전시킨 국가의 입장에서는 정작 자신이 던고 올라온 사다리(정책, 제도)는 치워 버리고 다른 국가들에게는 자유 무역의 장점을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잘못된 길을 걸어왔고 뒤늦게 자유무역의 가치를 깨달았다고 참회하는 어조로 선언하는 것보다 더 현명한 일

9) Walter L. Owensby, *Economics for Prophets* (Grand Rapids, Eerdmans, 1998), P. 137-139.

10) 장하준, 『개혁의 덧』 (서울, 부·키, 2004), 38 쪽.

은 없을 것이다<sup>11)</sup>

장하준 교수는 리스트의 ‘사다리 걷어차기’ 이론의 정당성을 설득력 있게 논증했다. 그는 사다리 걷어차기의 압력을 잘 이겨낸 예로서 일본의 자동차 산업을 들고 있다. 1960년대말 일본의 자동차 회사의 생산량은 다 합쳐도 미국의 GM 한 회사 생산량의 반도 되지 않았다. 만일 이때 자유무역론자들의 주장에 따라 일본이 비교우위가 없는 자동차산업육성을 포기하거나 경쟁을 통해 강화시키려고 미국에 시장을 개방했다면 오늘날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일본의 자동차 산업은 없었을 것이다.<sup>12)</sup> 현재 한미 FTA에서 미국이 가장 노리는 분야는 미국이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금융, 서비스 산업이다. 특히 서비스 분야에서 한국의 경쟁력은 미국의 절반 밖에 안 된다고 하니 이해영 교수의 전망처럼 절반은 사망 아니면 중상이고 나머지 절반 중에 극히 소수의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만 살아남게 될 것이다.<sup>13)</sup> 이로서 한국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이 출현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한미 FTA에 교묘하게 담겨있는 사다리 걷어차기의 압박을 잘 이겨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한미 FTA는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에 의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누차 주장해왔다. 더구나 노대통령은 미국과의 4대 통상 현안(쇠고기 수입재개, 배기가스 배출기준 완화, 스크린쿼터 축소, 약값 인하 중단)의 해결이 한미 FTA의 선결조건이었다는 점을 시인한 바 있다. 그렇다면 한국정부의 책임은 그 만큼 더 큰 것이다. 자국에게 장기적으로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지극히 높은 한미 FTA를 이런 식으로 주도적으로 추진한다면 ‘사대매국’ 정권이라는 험한 말을 들어도 별로 대답할 말이 없게 될 것이다.<sup>14)</sup>

그럼에도 한국정부가 한미 FTA를 굳이 추진하려는 동기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미 FTA를 통해 한국의 정치경제지배집단은 손해 볼 일이 별로 없거나 도리어 이익을 볼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판단과 직결되어 있다. 한미 FTA는 외부쇼크를 가져올 것이고 이는 특히 국내서비스 산업분야의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로 촉발된 구조조정을 완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 결과는 이미 경험한 바와 같이 일부 대기업주에게는 이익이 돌아가고 힘없는 서민들이 고통을 고스란히 껴안는 것이다. 이는 기독교윤리적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한미 FTA체결은 결국 정부를 매개로 해서 미국의 대자본과 한국의 대자본이 결탁하여 한국의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한미 FTA찬성론자들은 여전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반론한다. 그러므로 이점을 좀더 자세하게 분석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 2) 사회적 양극화 심화: 한미 FTA의 필연적 결과

한미 FTA 찬성론자들은 비교우위론에 입각하여 폭넓은 시장개방으로 말미암아 경제총량이 늘고 이는 다시 그릇에 물이 차면 낮은 곳으로 흘러 넘친다는 소위 국물 혹은 누수효과(trickle-down effect)를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까지 증대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편다. 이는 자본주의시장경제논리를 국제관계로까지 확대 적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런 주장의 신빙성은 우선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강력하게 펼쳐온 국가들의 경제현실을 살펴보면

11) 장하준 지음, 형성백 옮김, 『사다리 걷어차기, Kicking away the Ladder』 (서울, 부·키, 2002), p. 24-25에서 재인용함.

12) 장하준, 『개혁의 덫』, 39쪽.

13) 이해영, ‘한미 FTA 문제점과 1차 본협상’; KNCC URM 정책 협의회, 『한미 FTA와 도시농어촌 선교』 (미출판 자료집), 4쪽.

14) 이해영, 『낮선 식민지, 한미 FTA』 (서울, 페이데이, 2006), 36쪽.

대강 짐작할 수 있다. 예컨대 영국의 대처정권은 경제적 불평등을 크게 심화시켰다. 권위있는 『소득과 부에 관한 론트리 보고서(Rowntree Report)』에 의하면 1977년에서 1990년의 기간 동안 영국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은 한 국가를 제외하고 다른 어떤 국가보다 빨리 증가했다. 그 한 국가마저도 뚜렷한 평등주의적 유산을 물려받은 상황에서 다른 국가보다 훨씬 더 급진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쳤던 뉴질랜드였다. 1979년 이후에는 가장 낮은 소득 집단에게 소위 경제성장에 의한 누수효과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77년이래 전체 평균소득의 절반에 못 미치는 인구비율은 3배 이상 증가한 반면 1984-85년 가장 부유한 상위 20% 계층이 차지하는 과세후 소득의 점유율은 43%로 전후(戰後) 가장 높았다.

그렇다면 자유무역의 증대로 경제총량의 증대와 양극화 해소라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매우 낭만적인 태도라 할 것이다. 이해영 교수는 「복음과 상황」과의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해 이렇게 전망했다:

경제총량이 늘어나면 파이가 커지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다.... 경제학에서 총량을 측정하는 지표는 GDP이다. 옛날에는 GNP를 사용했다. 둘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GNP는 국적위주의 측정단위다. GDP는 국지주의적 지표다. 따라서 한국에서 미국 기업들의 경제활동은 GDP에 포함된다. 미국기업이 한국에서 생산하고 수출하고 판매하면 GDP는 올라간다. 일종의 눈속임이다. 하지만 GNP는 얼마인지 알 수 없고 새롭게 생산된 그 부가가치도 어디로 돌아갔는지 알 수 없다. 나는 총량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재정부에서 말하듯 GDP가 올라가고 결국 수익성이 개선되더라도 이익은 해외투자자나 재벌에 국한 될 것이다.<sup>15)</sup>

한미 FTA로 말미암아 양극화 현상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더 설득력이 있다. 앞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한미 FTA는 강력한 외부쇼크를 한국경제에 가할 것이고 이는 구조조정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는 1997년 말 외환위기와 함께 도입된 IMF관리체제 이후처럼 저소득층이 고통을 가장 많이 분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노동시장의 유연화란 말로 포장된 구조조정이야말로 양극화 심화의 가장 주된 원인이 되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구나 미국의 FTA는 일반적으로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한미 FTA체결로 이런 요구가 관철된다면 이는 유럽이나 동아시아보다 경제의 불평등도가 높은 미국경제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경제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과 FTA를 맺은 지 12년이 경과한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제현실이 이러한 전망의 신빙성을 뒷받침해준다.<sup>16)</sup>

### 3. 사회적 양극화 심화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입장

성경에서 오늘날의 경제현실에 곧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직접적인 교훈을 찾기는 어렵다. 성경시대의 경제체제와 고도화된 자본주의시대의 경제체제는 서로 판이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성경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오늘의 경제현실 특히 방금 언급한 사회적 양극화 현상에 대하여 윤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큰 틀의 준거를 제시해준다. 그 준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나라의 정의에서 우선적으로 찾을 수 있다.

#### 1) 하나님나라의 정의는 자유와 평등을 추구한다

##### ① 하나님나라가 요청하는 정의

15) [189호 권두], '한미 FTA는 잘못된 버스, 빨리 내리는 게 당연'; 이해영 교수, '집단화·이념화된 신자유주의 관료 견제를 위한 통상법 마련 절실', 인터넷 신문 『뉴스앤조이』, 2006.7.15.

(<http://www.newsnojo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924>)

16) 정태인, 상계글, 216-217 쪽.

그리스도인의 비전인 하나님나라의 정의는 양극화 현상의 심화에 강력히 도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스도인은 기도(마 6:10)와 실천(마 6:33)을 통해 하나님나라와 그 정의를 이 땅에 펼쳐나가야 할 사명이 있다. 하나님나라의 정의는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와 정치·경제적으로 이웃을 돌아보는 수평적 관계를 함께 아우르는 포괄적인 실체이다. 이는 신구약을 관통하는 진리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와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축복을 받아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비전을 주셨다(창 18:18-19). 그 비전에 등장하는 공의(righteousness; *ṣedāqāh*)와 정의(justice; *mišpāt*)란 단어는 특히 구약에서 한 쌍을 이루어 자주 나타난다(사 5:16; 렘 9:24; 암 5:24). 이 글에선 이 단어들에 담긴 정치·경제적 의미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고자 한다. 하나님의 공의(*ṣedāqāh*)는 특별히 사회 변경으로 밀려난 약자들을 위하여 공동체를 새롭게 만들고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행동과 관련되어 있다. 즉 그들의 권리를 회복시켜주셔서 공동체의 존엄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행동을 말한다.

*mišpāt*는 *ṣedāqāh*에 비해 좀더 법정 용어의 성격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보다 넓은 의미로 보면 *mišpāt*는 공동체에 속한 각 개인에게 주어지는 권리(렘 5:8)와 그 권리를 지켜주는 것을 말한다. 이런 의미로 사용될 때 통상적으로 *ṣedāqāh*와 짝을 이루어 사용된다. 탁월한 구약학자인 크리스토퍼 화이트는 두 단어의 관계를 잘 설명해준다: '*mišpāt*는 공동체의 구성원과 환경이 *ṣedāqāh*의 상태로 회복되기 위해 구체적으로 행해져야만 되는 것을 의미한다.'<sup>17)</sup>

이러한 공의와 정의는 자비(mercy)와 신의(faithfulness)와 더불어 율법이 체현하려고 하는 이상이다. 율법에 나타난 정의의 핵심은 가난한 사람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주고 빈부의 격차를 해소함으로 말미암아 사회 모든 구성원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다(렘 5:28-29). 하여 구약 율법은 가난한 자들의 권리를 다양하게 보호하고 있다. 첫째 임금채불을 금지하고(레 19:13; 신 24:14, 15) 둘째 금융과 관련해서는 가난한 자에 대한 무이자 대여(출 22:25; 레 25:35-37; 신 15:7-11; 23:19), 전당 잡은 옷을 해지기 전에 돌려주어 침구로 사용토록 하기(출 22:26, 27), 칠 년 단위의 빚 탕감(신 15:1-3) 등을 담고 있다. 셋째 음식과 관련해서는 매해 가난한 사람을 위해 곡물과 포도의 일부 남겨두기(레 19:9, 10; 23:22; 신 24:19-22), 3년마다 레위인과 사회적 약자의 음식 장만을 위해 십일조 드리기(신 14:28, 29; 26:12), 매 7년마다 그리고 회년에 땅을 놀림으로 스스로 자라난 것을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하기(출 23:10-11; 레 25:1-7, 11-12)를 명한다. 넷째 노예생활 6년 후에는 후한 독립자금과 함께 자유를 줄 것을 명하고(신 15:12-15) 마지막으로 매 50년마다 회년을 선포하여 땅을 원 소유자에게 돌려줄 것을 규정하고 있다(레 25:10). 같은 맥락에서 이사야서(사 1:17; 9:6-7; 11:1-5), 아모스서(암 5:24), 미가서(미 6:8) 등의 선지서들도 하나님의 통치의 핵심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정의임을 분명히 가르쳐 준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러한 구약전통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셨다. 또한 이사야 61:8과 58:6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을 통해 은혜의 해 즉 실질적으로 회년이 성취되었다고 선언하셨다(눅 4:18-19). 이 때 굳이 정의란 단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으셨지만 정의가 담고 있는 내용을 다 표현하셨다. 누가복음 4:18-19를 영적인 의미와 정치·경제적 의미를 아우르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경제적 의미에서 보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가난한 자가 경제적으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을 말한다. '눈 먼 사람에게 다시 보게 한다'는 것은 장애인의 건강을

17) Christopher J. H. Wright, *Living As the People of God: The Relevance of Old Testament Ethics* (Leicester, IVP, 1983), p. 134.



회복시켜 사회의 존엄한 구성원으로 살 수 있게 한다는 말이다.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는 말은 가난해 빛을 갓지 못해 노예가 되거나 감옥에 갇힌 자를 해방시켜 준다는 뜻이다. ‘억눌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한다’는 말은 힘이 없어 각종 억압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부여하여 그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 준다는 말씀이다.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정의가 자연스럽게 자유로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은 그런 맥락에서 당연히 제자들에게 하나님나라와 그 정의(*dikaiosynē*)를 가장 먼저 추구하는 삶을 살 것을 요청하셨다. 예수님은 최후심판에 대한 이야기(마 25:31-46)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사람이 바로 의인(*the just=ho dikaios*)임을 분명히 하심으로 정의의 실천이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가를 보여 주셨다.

바울 역시 롬 1:17에서 이런 신구약을 관통하는 전통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sup>18)</sup> 이는 롬 1:16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 한데서 매우 분명해 진다.<sup>19)</sup> 즉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언약의 공동체를 창조하시는 능력이다. 이것은 곧 죄인들을 구원의 공동체로 이끄실 뿐 아니라 그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보존하시는 능력이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의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관적인 행위와 하나님이 죄인에게 선물로 주시는 객관적 의를 포괄한다. 즉 죄인을 믿음을 통해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to count righteous)과 ‘의롭게 만드는 것’(to make righteous)을 포함한다.<sup>20)</sup>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단순히 우리의 법적 지위를 의롭게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죄인의 삶을 정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능력이다.<sup>21)</sup>

이렇게 믿음으로 의로워진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다. 이 때 정의로운 삶이란 위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과의 정의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도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을 목숨을 걸만큼 매우 중요한 사명으로 인식했으며(갈 2:10; 행 20: 22-24; 21: 13; 24: 17; 롬 15: 26)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dikaiosisynē*, 고후 9:9)임을 밝혔다. 이제 이러한 정의가 자유와 평등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좀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 ② 정의가 요청하는 자유와 평등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하나님나라의 정의가 실현되면 자유와 평등이 함께 꽃피는 인간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기초가 다져지는 것이다.<sup>22)</sup> 현대사회는 흔히 자유와 평등이 서로 충돌한다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유의 이름으로 평등에 대하여 반대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자유와 평등이 본질적으로 항상 충돌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다만 정의가 요청하는 자유와 평등을 각각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a) 정의가 요청하는 자유: 영국의 탁월한 기독교경제사학자였던 토니가 잘 지적한 것처럼

18) James D.G. Dunn, *Romans 1-8* (Dallas, Word Books, 1988), pp. 40-42. Mott, , p. 63.

19) M. Douglas Meeks, *God the Economist: The Doctrine of God and Political Econom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89), p. 77: ‘하나님의 의는 무(無)에서부터 삶을 창조하고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한다.’

20) Dunn, *Romans*, p. 41. 이 점은 교회사 속에서 특히 종교 개혁이후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매우 예민한 논쟁의 주제가 되어 왔다. 이 논쟁이 많은 부분에서 서로에 대한 오해에 기인하고 있음을 Alistair E. McGrath는 그의 저서 *Christian Theology: An Introduction* (Oxford, Blackwell, 1997), pp. 437-449에서 간략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다.

21) 바울의 정의(*dikaiosisynē*)에 대한 이해를 좀더 자세한 연구하기 위해서는 eds. G.F. Hawthorn, R.P. Martin, D.G Reid, *Dictionary of Paul and His Letters* (Leicester, IVP, 1993), pp. 827-837을 참조하라.

22) K. Lebacqz, *Justice in an Unjust World: Foundations for a Christian Approach to Justice* (Minneapolis: Augsburg, 1987), pp. 125, 128-129.

럼 ‘평등은 자유와 대조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자유에 대한 특정 해석과 충돌이 일어날 수 있을 뿐이다.’<sup>23)</sup> 평등에 의해서 억압된다고 주장하는 자유는 통상 소극적 자유(negative liberty)를 의미한다. 소극적 자유는 하이에크가 잘 정의한 것처럼 ‘타자의 자의적인 의지에 의해서 강압 당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sup>24)</sup> 또한 그에 의하면 이러한 자유는 ‘내가 자신의 주인인지 그리고 자신의 선택을 따를 수 있는지의 여부’의 문제로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얼마나 많은 지의 여부와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sup>25)</sup> 여기서 선택 가능성의 폭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자신이 보유한 경제적 힘과 직결된다.

그러나 하이에크 자신이 인정한 것처럼 소극적 자유의 가치가 인간으로 하여금 자율적이며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실제로 받쳐줄 수 있는 경제력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레이몬드 플란트도 ‘만일 내가 실제로 하기 원하는 바가 내게 열려있는 가능성들과 별로 겹치지 않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면 대단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매우 이상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했다.<sup>26)</sup> 같은 맥락에서 롤즈는 단순히 소극적인 자유엔 ‘자유’의 가치가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sup>27)</sup> 그러므로 인간이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삶을 실제로 살 수 있으려면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삶의 목적한 바를 실현할 수 있는 일정 정도의 능력 즉 적극적 자유(positive liberty)가 필요하다.

정의는 위에서 본 것처럼 바로 이런 적극적 자유까지 요청한다. 50년마다 자기 땅의 사용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회년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고 하셨다(레 25:10).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시켜주시기 원하는 자유는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소극적 자유뿐 아니라 자기 땅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즉 적극적 자유임을 분명히 하신 것이다. 예수님도 같은 맥락에서 은혜의 해 즉 회년을 선포하심으로 포로되고 눌린 자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메시아로서의 사명임을 분명히 하셨다(눅 4:18).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정의의 이름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이러한 자유를 보장해주기 위하여 일정 수준의 경제적 평등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자유에 반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평등의 요구가 법적 제재를 통해 지나친 개인의 이기적 욕망의 추구를 일정 정도 제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문제는 평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모르는 자유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토니가 잘 지적한 것처럼 사실 자유가 사회에 일반적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도 언제나 각 개인 특히 강한 자의 자유는 평등이라는 잣대에 의하여 법적으로 일정 정도 제한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독재자가 자신의 강력한 카리스마와 강제력을 이용해 군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경제적 힘을 동반한 적극적 자유가 사회에 일반적으로 존재하기 위하여 평등의 이름으로 개인의 이기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반대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물론 적극적 자유의 확보를 위해 정의가 요청할 수 있는 경제적 평등에 한계는 없는 가라는 질문을 간과할 수 없다. 지나치게 평등을 추구하다 보면 자유와 치명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모든 생산수단을 국유화한 서구사회주의 국가는 권력집중현상으로 말미암아 자유가 무너지고 결국 정치경제 체제 자체가 붕괴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가 요청하는 평등

23) R. H. Tawney, *Equality*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31/1983), p. 164.

24) Hayek, *The Constitution of Liberty* (London and Henley, Routledge & Kegan Paul, 1976) p. 11.

25) Hayek, *Constitution*, p. 17.

26) Raymond Plant, *Modern Political Thought* (Oxford: Basil Blackwell, 1991), p. 239.

27) John Rawls, *Political liberalism* (Cambridge: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pp. 324-331.

의 내용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해야 한다.

b) 정의가 요청하는 평등: 정의와 평등을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시킨 사람은 바로 바울이다. 한편으로 바울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구체 헌금하는 것을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고후 8:1-15** (13) 나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형을 이루려 합니다. (14)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 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에는,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평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15) 이것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한 것과 같습니다[표준새번역]

‘평형’으로 번역된 *isotes*란 헬라어는 동일, 공평, 평등(equality)이란 뜻을 갖고 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제적으로 평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이웃의 필요를 채워줘야 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똑 같은 행위를 바울은 정의란 관점에서 설명한다:

**고후 9:8-11** (9) 이것은 성경 말씀에 기록한 바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뿌려 주셨으니, 그의 의로우심이 영원하다’ 한 것과 같습니다. (10)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해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 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11)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서 부요하게 하시므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9절은 시편 112: 9를 인용한 것인데 의로우심은 히브리어로 *ṣedāqāh*이고 헬라어론 *dikaïosynē* 되어 있다. 10절의 의는 역시 *dikaïosynē*이다. 이렇게 볼 때 바울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정의로 이해함으로써 구약에서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평등과 정의가 같은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정의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다.<sup>28)</sup>

그러면 정의가 요청하는 평등의 한계는 무엇인가? 셴이 잘 지적한 것처럼 평등에 관한 논쟁을 평등 ‘옹호’론자와 평등 ‘반대’론자의 싸움으로 보면 핵심 주제를 놓치는 셈이다. 소득평등주의자든, 고전적 공리주의자든, 순수한 자유주의자든 자기 나름대로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평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요는 ‘무엇에 대한 평등을 요구하는가’에 있다.<sup>29)</sup> 이기심과 죄가 없는 이상적 세상을 가정하고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평등은 소득과 부의 평등한 분배로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헬러는 흥미 있는 주장을 하였다.<sup>30)</sup> 일반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결합된 사회에선 각 개인이 사회에 진입할 때는 경제적으로 평등하고 나올 때는 불평등하다. 즉 사회진입 시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다는 점에서 평등하다. 그러나 그 재능을 발휘한 노력에 대한 보상을 각기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불평등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헬러는 평등과 불평등의 순서가 뒤집어 저야 한다고 본다. 사회에 진입할 때는 불평등하고 나올 때는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인간은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것들은 저마다 모두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 재능을 발전시켜나가는 데는 필요한 경제적 자원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각 개인에게

28) Mott, *ibid.*, p. 64.

29) 아마티아 셴 지음, 이상호·이덕재 옮김, *불평등의 재검토*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2/1999), 5-7, 34-65 쪽.

30) Agness Heller, *Beyond Justice* (Cambridge, Blackwell, 1991), pp. 180-205.

불평등하게 자원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재능을 개발하고 사용한 것에 대한 보상은 같아야 한다. 왜냐하면 각 재능은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헬리의 평등과 불평등 사상은 타락하기 이전의 세상 혹은 구속받은 다음 절대 다시 죄를 짓지 않는 세상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자유를 지닌 존재라는 사실은 곧 인간이 평등한 존재인 것을 보여 준다. 그리스도의 구속사건은 이 진리를 재확인해 준다(갈 3:28). 바울은 각자가 지니고 있는 다양한 은사들이 평등하게 소중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전 12: 13-27). 칼빈의 경제윤리에 있어서도 인간의 평등사상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sup>31)</sup> 만일 이렇게 평등한 인간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다면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자신의 재능과 은사를 활용하여 건강한 자아성취와 이웃사랑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그 결과로 평등한 경제적 풍요를 누리게 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은 타락하였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완벽하게 죄를 극복할 수 없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실성과 세상에서의 현실성 사이에서 평등의 한계를 그을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롤즈의 정의론은 좋은 도움을 준다. 그의 정의론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발전시켜나간다면 모든 인간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공동체성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에서 정의가 요청할 수 있는 평등의 한계점에 대하여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논문의 지면상 롤즈의 정의론을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을 여기서 다 소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결과만 간단히 제시하고자 한다.<sup>32)</sup>

1. 시민의 기본적 필요에 대한 모든 구성원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2. 민주적 참여를 확보하기 위해 평등한 기본권과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3. 사회적 지위와 직책을 얻는 데 균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와 아울러 본인이 속해 있는 기관 내의 경제적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균등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4. 사회의 모든 조직체의 구조가 공공협력을 유도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형성되어야 한다.<sup>33)</sup>
5. 사회적, 경제적 불균등은 다음의 조건하에서만 정당화 될 수 있다. 첫째, 그 불균등이 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는 계층에게 최대의 이익을 줄 수 있어야 하고 이는 정당한 저축의 원칙과 양립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그 불균등은 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는 계층의 자기 존중을 심각히 해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상의 정의론에 입각하여 보면 정의가 요구하는 경제적 평등에는 4단계 혹은 차원이 있다. 첫째, 기본적인 필요에 대한 평등한 권리의 보장을 요구한다. 이에 대한 신학적 근거는 이미 위에서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본다. 둘째, 사회적 지위와 직책을 얻는 데 균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한다. 이 역시 성서적 경제정신에 합치한다고 본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구약의 안식년에 빚을 탕감해 주는 것(신15:1-3), 특히 희년에 땅을 원래의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것(레25:8-13) 등은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세대에게도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셋째, 가장 불리한 계층의 이익을 최대화한

31) 앙드레 비엘라, 『칼빈의 경제윤리』 (서울: 성광문화사, 1985/92), 59-61, 68 쪽.

32)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Deuk-Hoon Park, *Christian Praxis and Economic Justice* (New York: Peter Lang, 1999) pp. 111-128, 159-216을 보라.

33). ‘공공협력 이론’은 Jonathan Boswell, *Community and The Economy : The Theory of Public Co-operation* (London: Routledge, 1990)에서 도움을 받은 것이다.

다는 조건하에서만 경제적 불평등을 용인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한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그 사회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로 향한다(마 25:31-46; 렘22:16). 그러므로 프레스톤이 주장한 것처럼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거증의 책임은 불평등에 있는 것이다.’<sup>34)</sup> 넷째, 가장 불리한 계층의 자기 존중감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에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한다. 절대적인 차원에서 경제적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도 불평등이 너무 심화되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부여하신 건강한 자기 존중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나라의 정의가 요청하는 자유와 평등의 관점에서 한미 FTA를 평가한다면, 그리스도인은 한미 FTA로 말미암아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사회양극화 현상에 대하여 외면할 수 없다.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의 병폐가 국경을 뛰어 넘어 더 고차원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것을 온 힘을 다해 저지해야 할 것이다. 해방신학자 E. 듀셀은 대자본가들이 정부를 등에 업고 국가간 경제동맹을 맺어 죄를 확대해 가는 것을 이사야 30:1에 빗대어 ‘죄에 죄를 더하는 것’(adding sin upon sin)이라고 맹렬하게 비판한다.<sup>35)</sup> 적절한 분석이다. 죄란 가장 본질적인 면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죄는 인간집단들간의 수평적 관계로 구성되어 있는 정치·경제적 영역에서 그 흉악한 정체를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그리스도인은 예언자적 통찰력으로 그러한 죄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에 적절한 이름을 붙여줄 수 있어야 한다. 사회와 국가가 그 죄에서 떠날 수 있도록 외쳐야 한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양극화 현상을 정당화하며 추동해 가고 있는 더 깊은 차원의 문제점을 밝혀내야 한다.

## 2) 사회적 평등은 mammon숭배와 경쟁절대주의에 도전한다

사회양극화의 심화라는 치명적인 결과가 초대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를 추구하려는 그 힘과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가히 합리적 사고를 뛰어 넘는 종교적인 힘과 유사하다. 그 힘은 바로 mammon숭배와 경쟁절대주의다. 사회적 평등실현을 위해선 이 두 가지 힘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도전해야 한다.

### 1) mammon숭배

이는 무엇보다도 mammon숭배에서 흘러나오는 힘이다. 네델란드의 기독교경제학자인 하우즈 바르트는 하나님나라의 관점에서 지구화 현상을 분석한 책에서 현대인들이 mammon을 숭배하다 집단적 최면에 걸려 있다고 진단한다. 그들은 경제적 성장주의 신화에 빠져서 ‘성장이 항상 나와 함께 하리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고 노래한다. 이는 소비주의로 직결되어 ‘좀더 많은 것이 항상 좀더 적은 것보다 낫고 다른 대안은 없다’는 확신에 이르게 한다. 무제한적인 경제적·기술적 팽창을 신봉하는 이념 즉 mammon을 숭배하는 이념의 노예로 전락한 것이다. 경제적 풍요를 통해 자율적이고 무제한적인 자기 확대를 실현할 수 있다는 확신에 사로잡힌 것이다. 이는 종교성을 띤 신화나 다름없다.<sup>36)</sup>

같은 맥락에서 허경희도 현대사회의 mammon숭배를 개탄한다:

신은 죽었다. 그러나 돈의 신, mammon은 예외이다. 우리들 현대인에게 그는 유일하게 현재(顯在)하는 신이다. 우리들은 ‘이성 잃은 경제 이성’으로 유일하게 현재하는 신, mammon의 영광을 이 땅에 재현하는 거룩한 mammon의 성도(聖徒)들이다. 우리들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우리의 생

34). Ronald H. Preston, *Religion and Persistence of Capitalism*, (London, SCM, 1979) p. 99.

35) Enrique Dussel, *Ethics and Community* (Turnbridge Wells, Burns & Oates, 1988), pp. 135-145.

36) Goudzwaard, *ibid.*, p. 30.

명 그 자체인 노동을 스스로 꺾어짜 내며 부를 간구하고 있고, 맘몬은 반색하며 우리에게 ‘마조히스트(masochist)의 자학적 풍요’를 하사하고 있다. 또한 우리들은 가난으로 고통받는 다른 우리들에게 등을 돌리며 나의 부를 간구하고 있고, 맘몬은 우리에게 기꺼이 ‘샤일록(Shylock)의 냉혹한 풍요’를 하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맘몬에게 우리의 건강과 우리 후손의 멸종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생명의 종식을 번제물로 바치며 부를 간구하고 있고, 맘몬은 우리에게 흔쾌히 ‘학살자(slaughterer)의 잔혹한 풍요’를 하사하고 있다.<sup>37)</sup>

이렇게 잔혹한 현대맘몬숭배의 진원지는 놀랍게도 기독교국가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미국임을 1991년 12월 31일 독일의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이렇게 간파하였다: ‘전능하신 신(神) 대신 시장이 등장했다. 이 신의 현현(顯現)은 뉴욕의 주가지수(Dow-Jones-Index)이고, 그의 성체는 미국의 달러이며, 그의 미사는 환율조정이다. 그리고 그의 나라는 지금 크레플린의 지도자까지도 찬양하는 자본주의적 보편문명이다’.<sup>38)</sup> 이것이 우리가 FTA를 맺으려는 나라의 경제구조적 진상이다. 물론 이것이 미국이란 나라의 전부는 아니다. 그 안에는 선의의 사람,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심지어 자본주의 지배세력 가운데도 개인도덕의 차원에서 탁월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사회윤리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가져다주는 불의한 구조와 제도의 차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구성원이 개인적으로 도덕적 인품과 선한 의도를 갖고 있더라도 자신이 몸담고 있는 사회의 구조악에 대하여 무지하거나 외면한다면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없는 일이다.

한국의 그리스도인은 맘몬의 힘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미국자본주의 구조악에 눈감을 수 없다. 더구나 그런 최악 된 구조에 한국을 적극적으로 편입시켜 함께 더 열정적인 맘몬 숭배라는 집단적 최면상태에 빠지게 하려는 한국정부의 움직임을 손놓고 바라볼 수만은 없는 일이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강력한 저항을 촉구한다. 예수님은 이미 오래 전에 하나님을 대항하여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맘몬이라고 경고한 바가 있다(마 6:24). 그런 점에서 세계자본주의의 문제는 단순히 구조의 문제가 아니다. 영적인 문제다. 미국식 자본주의 구조와 제도가 놀라운 견고함을 갖고 있는 것은 인간의 이기적인 경제적 욕망 때문이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맘몬이 배후세력으로 그 욕망을 끊임없이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와의 싸움은 바로 그런 점에서 영적인 전쟁이다. 그리스도인은 골리앗 앞의 다윗의 심정으로 이 전쟁터에 과감히 뛰어 들어야 한다.

## 2) 경쟁절대주의

맘몬숭배와 아울러 한미 FTA를 추동하는 또 하나의 세력은 경쟁절대주의의 이념이다. 물론 서로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한 제한된 경쟁, 건전한 경쟁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에 맞는 일이고 바람직한 것이다. 허나 그것이 경쟁절대주의라는 하나의 이념으로 자리 잡게 되면 매우 위험한 일이다. 이는 인간본성의 다른 측면 즉 관계적 존재, 공동체적 존재로서의 인간성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물론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사회철학자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그러한 인간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정, 시민사회내의 다양한 집단 즉 소위 ‘부분적 공동체’가 있다고 주장한다. 냉혹한 경쟁은 시장에서만 벌어질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시장의 경쟁논리가 현대사회 구석구석에 얼마나 넓게 그리고 깊숙이 파고들고 있는가를 애써 외면하는 구차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하우즈바르트가 잘 지적한 것처럼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경쟁논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 널리 그리고 아주 깊이 침투하고 있다. 학교, 스포츠킴관, 심지어는 병원까지 시장의 경쟁논리를 수용하

37) 허경희, 상계서, 360-361 쪽.

38) 올리히 두크로 지음, 손규태 옮김,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대안』 (서울, 한울, 1997), 5쪽. 역자서문에서 재인용함.

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경쟁원리는 가히 전체주의적 성격을 띄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또한 기업은 치열한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 정보공학을 최대한 활용하여 각종 미디어와 통신망에 연결된 인간의 마음 깊숙이 침투해 들어가고 있다. 현대인들은 거의 무방비상태로 다양한 상품과 관련된 정보홍수에 노출되어 진정한 인간성을 상실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 과정에서 인간의 행복한 삶에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새로운 희소성이 인위적으로 창출된다.<sup>39)</sup>

문제는 경쟁논리에 철저히 맹종하는 시장은 그 희소성이 충족되도록 세계자원을 동원하는 반면 세계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과 관련된 긴급한 필요를 채우는 일, 즉 식량과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데는 속수무책이라는 점이다. 이 문제는 정부나 구호단체들에게 넘겨진다. 정부에서 도움을 받는 경우 그나마 다행이지만 구호단체를 통해 도움을 받을 경우 수혜자는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하기 일수이다. 시장에는 냉혹한 경쟁과 철저히 이기적인 행동만이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결국 최선의 공익을 성취하게 된다는 그럴듯한 논리에 더 이상 무비판적으로 현혹돼선 안 된다. 시장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경쟁절대주의가 초래하고 있는 수많은 병폐를 직시하고 도전해야 한다.

### 맺음말

그리스도인이 한미FTA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회적 약자의 관점과 과학적 역량을 갖춘 사회분석도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사다리걸어차기론의 관점에서 볼 때 한미 FTA는 장기적으로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또한 미국이 요구하는 바를 받아들이게 되면 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도 불 본 듯 뻔한 일이다.

성경은 이러한 경제현실에 대하여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준거로 하나님나라의 정의를 제시한다. 하나님나라의 정의의 핵심은 가난한 자의 권리를 회복시켜줌으로 공동체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데 있다. 하나님나라의 정의는 소극적 자유 뿐 아니라 적극적 자유를 요청한다. 또한 평등을 요청한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은사와 활동을 존중하기 때문에 이기심과 죄가 없는 이상적 상황이라면 경제적인 면에서 완벽한 평등을 누리길 원하실 것이다. 그래도 자유와 충돌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기적인 면이 있고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인간사회에서 자유와 평등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려면 평등은 어느 정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롤즈의 정의론을 기독교적으로 좀더 발전시키면 평등이 요구하는 바에 대한 적절한 지침을 찾아낼 수 있다. 그것은 기본적인 필요에 대한 평등한 권리의 보장, 사회적 지위와 직책을 얻는 데 균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권리, 가장 불리한 계층의 이익을 최대화한다는 조건하에서만 경제적 불평등을 용인할 수 있는 권리, 가장 불리한 계층의 자기 존중감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적 불평등에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하나님나라의 정의가 요청하는 자유와 평등의 관점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한미 FTA협상을 평가한다면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그 체결을 저지할 수밖에 없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당한 자유와 평등에 대한 요구를 억누르는 무기로 한미 FTA가 부추기고 있는 맘몬사상과 경쟁절대주의에 대하여도 항의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구체적 운동과 실천이다. 냉소주의나 패배주의는 사회변혁을 열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함정이다. 하나님나라의 전망을 궁극적 희망으로 가슴에 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야 한다.

첫째, 지금은 그람시가 주장한 진지전 전략을 채택해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뜻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단체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 둘째, 같은 뜻을 품은 시민운동 단체와도 연대하여 시민사회 내 헤게모니를 확립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은 혁명의 시기는 아니다. 시민사회에서 누가 헤게모니를 장악하느냐에 따라 한국사회의 방향은 상당부분 결

39) Goudzwaard, Ibid., pp. 30-32.

정될 전망이다. 한미 FTA를 통해 한국을 마침내 집어삼키려 하는 신자유주의 지구화의 거대한 물결을 막아낼 수 있는 최후의 보루도 결국 시민사회라고 보여진다. 시민사회의 힘으로 한국사회와 지구촌이 하나님나라의 정의로운 모습에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워져 가기를 열망한다.